

〈서평〉

제주도 속담 연구의 총결산

- 고재환의 『제주속담총론』(2001, 민속원) -

최운식*

속담은 삶의 지혜나 교훈을 비유적·상징적으로 압축해 놓은 관용구(慣用句)로서, 훌륭한 문학 유산이다. 그러므로 속담 연구는 우리 민족의 삶의 자취와 의식, 가치관, 문학적 상상력을 아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데다가 화산에서 분출된 흙이 섬의 표면을 이루고 있어 척박하고, 물이 부족한 데다가 악천후까지 겹쳐 농사와 축산에 어려움이 많았다. 거기에다가 지배층의 억압과 착취, 다른 민족의 침략과 수탈 등이 겹쳐 제주도민은 고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은 고난 극복의 의지와 자립심으로 이를 극복하고, 그에 걸맞은 향토문화와 속담을 형성·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자연환경적 조건과 역사적 현실 때문에 제주도 속담은 본토의 속담과는 다른 특성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제주도 속담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별다른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제주도 출신으로, 오래 전부터 제주도 속담을 연구하여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제주도 속담연구』(집문당, 1993)와 『제주도 속담사전』(제주도, 1999)을 펴낸 바 있는 고재환 교수가 이번에 『제주속담총론』(민속원, 2001, 4.)을 학계에 내놓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의 연구 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제1장에서는 저자가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채록한 속담 중 제주도속담으로 추정되는 속담 550편을 대상으로, 제주도 속담의 배경·형태·소재·직능·주제·표현·성향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저자가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채록한 제주도 속담 800여 편 중 생업(生業)에 관한 속담 211편을 대상으로, 이들의 형성 배경, 양상(樣相), 소재와 내용 및 주제를 분석하였다. 대상으로 삼은 속담 중 농사와 축산 및 수렵에 관한 것이 131편인데, 축산에 관한 것이 64편으로 농사 관련 속담 51편보다 많다. 어로 및 잠수에 관한 속담은 80편인데, 잠수에 관한 속담이 49편으로 어로에 관한 속담 21편의 배가 넘는다. 농사와 축산 관련 속담은 농작물의 재배·수확·혹사(酷使)·권고, 축산물의 목양(牧養)·품평(品評)·활용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고, 주제는 실리·근실(勤實)·수분(守分)·교시(教示)가 주를 이룬다. 어로 속담은 어류와 조류에 관계된 것인데, 어류의 경우 해수어(海水魚)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담수어에 관한 것은 없다. 잠수 속담은 고동과 소라·전복·미역·게·성게 등이 주를 이룬다. 어로와 잠수 속담의 주제를 보면, 어로 속담은 교시·실리·수분·검약이고, 잠수 속담은 실리를 앞세운 교시·강인(強靱)·검약이다. 이것은 열악한 생활 여건을 극복해 낸 삶의 내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3장에서는 제주도의 농어촌 속담 320편과 전라남도의 농어촌 속담 414편을 비교 고찰하였다. 농사와 축산에 관한 속담을 보면, 제주도가 '잡초', '맷돌', '우마(牛馬)', '돼지'에 관한 것이 많은데 비하여, 전남은 '절기(節氣)', '풍물 기구', '논과 밭', '못자리', '소', '누에'에 관한 것이 많았다. 어로와 잠수에 관한 것을 보면, 제주도에 '자리돔'이 많이 등장하고, '소라·전복·해삼·성게·미역' 등 잠수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그런데 전남에는 '홍어'가 많이 등장하고, '김·굴·바지락'과 같이 양식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이처럼 두 지역의 속담에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음을 밝혔다.

제4장은 저자가 그 동안 발표하였던 제주도 속담 관련 논문을 모은

것으로, 제주도 속담의 시가적 특성, 교육적 기능, 연구사, 금기어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제주도 속담의 배경·형태·소재·직능·주제·표현·성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제주도 속담의 본질을 파악하였다. 이것은 제주도 속담과 육지의 속담을 비교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 생업 속담의 분석을 통하여 제주도 속담은 제주도의 입지적 풍토성과 직결된 생활상과 맞물려 향토생활사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잠수 속담은 한국 속담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한국 여성 속담의 위상 정립에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임을 밝혔다.

셋째, 제주도와 전라남도 농어촌의 속담 비교를 통하여 두 지역 속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찾아냈다. 두 지역 속담의 차이점은 두 지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서로 다른 풍토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또 전남이 다도해 지역의 많은 어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농사가 성행한 곳이어서 생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을 밝혔다.

넷째, 제주도 속담은 다른 지역의 속담과 마찬가지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지육(智育)면에서 자립도생(自立圖生)을, 덕육(德育)면에서 내세관을 결부시킨 계세징인(戒世懲人)을 강조하고, 체육면에서 식생활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이것 역시 제주도 속담의 특성으로, 제주도의 풍토성 및 역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제주도 속담의 정체성을 밝히고, 제주도 속담이 한국 속담에서 갖는 비중과 위상을 밝히는 데에 큰 몫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제주도 속담 연구의 총결산'으로, '한국 속담 연구의 획을 그은 업적'이라 하겠다. 이 책이 속담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한국 학계에 신선한 충격이 되어 속담 연구의 후속 작업이 이어졌으면 한다.

제주도 방언은 육지의 방언과 다른 점이 많아서, 방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주도 속담을 연구할 수 없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 출신으로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스러운 저자가 일찍부터 속담 연구에 온 힘을 기울여 제주도 속담 연구를 총 결산하는 책을 출판한 것을 경하하며, 연구 여건이 더 나빠지기 전에 미진한 부분의 연구 성과를 계속하여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